한나라당 김대식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27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홍준표 전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 2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순천 연향동의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고향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나라당 제공〉

28일 광주 5·18기념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참여당 당원대회에서 이병완 광주시장 예비후보, 이재정 대표, 유시민 경기지사 예비후보(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등이 "노무현처럼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 필승" 여야 광주·전남서 세몰이

민주당 오늘 광주서 '뉴민주당 플랜 전국순회 콘서트'

참여당 전진대회…한나라당도 중진의원 순천 총 출동

여·야가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호남 표심 잡기'를 위한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민 참여당, 평화민주당이 광주와 순천에서 당원 정책설명회, 당원 전진대회, 창당대회 등을 잇달아 열면서 '호남 필승'을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광주에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을 비롯한 당원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 민주당 플랜 전국 순회 콘서트'를 연다. 콘서트에는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 교육·경제·복지·통일·출산 정책 등 총 7개 분야·54개의 브랜드 정책을 발표한다. 민주당은 광주·전남 정책 콘서트를 시작으로 31일 대구·경북 등 전국을 순회할 계획이다.

국민참여당도 28일 오후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호남·제주 당원대회'를 개최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대회에는 이재정 당 대표와 유시민·이병완 등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광주·전남·전북·제주 당원 2천여 명이 참여해 당원 밴드의 공연과 노래 등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됐다. 이재정 당 대표는 "국민경선을 통해 광주시민들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뽑은 것 자체가 광주의 위대한 역사"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예비후보자들과 당원들을 격려했다.

한나라당도 지난 27일 김대식 한나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참석을 위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홍준표 전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중진급 의원 26명이 대거 출동했다. 한나라당 의원이 도내 지방도시를 찾기는 이례적으로 마치 의원총회를 방불케 했다. 사실 개소식 참석을 위한 것이지만, 한나라당 띄우기를 위한 전략으로 지역정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이날 사무실 주변에는 지지자와 시민 등 수천 여명의 인파가 몰려 혼잡을 빚었다.

최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한 평화민주당도 27일과 28일 잇따라 순천과 광주에서 전남도당과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하고 표밭갈이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광주시당 창당대회에서 "민주당은 호남에서 표만 원하고 있을 뿐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서 단 한 석이라도 건질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민주당은 광주시당 대표로 조선대 박종철 교수를, 전남도당 대표로 김경재 전 의원을 선출했으며, 창당 이후 후보 공천신청을 받아 모든 후보를 중앙당이 아닌 지역의 당원들이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계파 갈등' 민주당 비주류 결집하나

정동영·추미애 등 중진 31일 회동 관심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내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비주류가 당권파에 맞서 세결집을 시도하고 나서 주목된다.

비주류 결집이 가시화한 데는 야권연대 협상으로부터 비롯됐다. 주류 측이 일방적으로 비주류 인사들의 지역구를 다른 야당에 내줬다는 불만이 비주류 사이에서 확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주류 중진인 천정배·김영진·이석현 의원 초청 형식으로 오는 31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야권 연대와 당내 의사소통 문제 등을 주제로 한 대규모 의원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 회동에는 정동영·천정배·추미애 의원 등 비주류 의원 20여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주류의 이 같은 행보에는 정·천·추 의원 3인의 정치적 진로 모색과 맞물려 있다. 3명 모두 오는 7월 전당대회에서 무엇인가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 안팎에선 지방선거 국면을 거치며 이들 3인을 주축으로 '비당권파 연대'가 본격 구축돼 당내 세력지형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오는 5월 원내대표, 국회 부의장 경선과 7월 전당대회에서도 힘을 모아 주류 측과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모두 16대 때 정풍운동을 주도한 바른정치모임 출신으로 역할 분담이 잘 이뤄지면 주류 측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당내외의 일반적 시각이다.

28일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 세가 밀리는 비주류 3인방이 힘을 모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하지만, 3명 모두 당 대표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충분, 역할 분담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구 3일, 서·광산구 11일, 북구 18일

민주 광주시당 내달 구청장 경선 일정 확정

민주당 광주시당은 27일 광주지역 구청장 경선 일정을 ▲동구 4월3일(오후 2시)·동구문화센터 ▲서구 4월 11일(오후 4시)·장소 협의중 ▲광산구 4월11일(오후 1시)·호남대 체육관 ▲북구 4월18일 (시간·장소 미정)로 각각 확정했다.

시민배심원제가 적용되는 남구청장 경선 일자는 중앙당 선관위의 논의를 통해 추후 결정된다. 이로써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경선일자가 모두 확정됐다.

동구는 조영복, 유태명 후보가 확정됐으며, 서구도 김선옥·전주언 등 2명의 후보가 확정됐다. 북구와 광산구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중앙당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통해 광주시당 공심위가 후보자를 압축하기로 했다.

한편, 남구를 제외한 4개 구청장 경선 방식은 당원 직접투표와 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각 50%가 반영되는 국민참여경선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지방선거 핫코너

지방입지자들 "초계함 침몰 애도" 행보 자제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해군 '초계함' 침몰 사고로 인한 애도 분위기를 감안, 선거 행보를 일시 중단하면서 정부의 신속한 실종자 수색과 철저한 사고 원인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석형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27~ 28일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했다. 정동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8일 모든 경선일정을 중단하고 부상자들을 격려하고 실종자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향했다. 박준영 전남지사, 민주당 이용섭·주승용·강운태 의원, 이석형 전남지사 예비후보 등은 성명을 내고 "실종자 가족의 심정으로 무사귀환을 기원한다"면서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형석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도 성명을 냈으며,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은 30일로 계획한 탈당 후 무소속 출마선언을 연기했다.

법인택시조합 '이용섭 지지 선언' 논란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택시 및 교통관련 정책을 지지한 광주법인택시조합이 지지선언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광주 법인택시사업조합과 광주 개인택시사업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본부·광주지역기업별 택시노동조합 등 광주지역 법인·개인택시 4개 단체는 지난 26일 이용섭 의원의 택시 및 교통관련 10대 정책에 적극 동의한다며 공식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한성교통 등 광주법인택시사업조합 소속 13개 회사 대표들은 28일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수렴 또는 동의과정도 없이 사업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표된 이번 행위는 전형적인 줄서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임성훈 "나주를 교육1번지로"

임성훈 민주당 나주시장 예비후보는 28일 나주 금하장학회의 서의열 이사장 등 교육관계자들과 만나 "나주를 전남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날 "공교육 강화와 함께 파격적인 지원과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의 개발로 나주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허남석 "곡성군수 무소속 출마"

허남석 곡성군수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지난 27일 곡성읍사무소 옆 마트타운 2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허 예비후보는 "문화·관광·농업 등 각 분야의 변화를 통해서 돈 잘 벌고 살기좋은 곡성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허 예비후보는 서울 마포경찰서장, 곡성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장철우 선거사무소 개소

장철우 민주당 고흥군수 예비후보는 27일 고흥읍 남계리 704-1 2층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장 후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흥군의 영어캠프 사건과 녹동 쾌속선 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고흥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대로는 고흥의 미래가 없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없다"며 "달라져야 한다. 오는 선거를 통해 군민들과 함께 반드시 고흥을 제대로 된 고흥으로 바꾸겠다" 고 역설했다.

"쌀 문제 해결" 공동공약 제시

민주당 장흥군 도의원 예비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쌀 문제 해결을 공동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장흥지역 도의원 예비후보들인 김창남·이충식(1선거구) 김광준·김기주(2선거구) 등 4명은 지난 26일 오후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쌀 지원 특별법 법제화'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공동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재고누적으로 발생한 것이다"며 "쌀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대북 쌀 지원과 법제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